

“이제 기회가 왔다” 최원준은 응답할까

이범호 허벅지 부상 심각...주전 3루 확보 관심



KIA 타이거즈 멀티플레이어 최원준(22)이 호기를 만났다. 주전 3루수 이범호가 허벅지 부상으로 중도 귀국했다. 허벅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여 개막 출전은 쉽지 않다. 출전하더라도 이제는 수비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를 감안하면 젊은 후계자가 뒤를 이을 시기이기도 하다.

3루수 경쟁자는 최원준과 류승현. 이창진 정도로 꼽힌다. 황대인이 있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경쟁에 합류하기 힘들다. 결국은 캠프 트리오의 경쟁에서 3루 주인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작년 내야수와

외야수로 풀타임 활약을 펼친 최원준이 3루 주전을 확보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최원준도 “14경기를 모두 뛰고 싶다”며 풀타임 주전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김기태 감독은 2016년 입단할 때부터 최원준을 눈여겨 보았고 계속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 타격 능력, 주력, 어깨 등 기본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다. 고교 3학년때 투수에서 유격수로 변신해 수비는 어설했다.

2군 감독에게 “무조건 내야수로 키워내라”며 특별 주문을 했고 실전에 계속 뛰게 했다. 지금은 수비에

서 여유도 생겼다.

특히 스프링캠프에서는 요미우리의 특급 타자들을 초빙해 함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베테랑 포수 아베 신노스케, 일본 국가대표 유격수 사카모토 하야토와 저녁 식사를 겸한 자리였다. 아베와 사카모토는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타격과 수비를 자랑하는 선수들이다. 이들에게 타격의 방법, 훈련하는 방법, 프로 야구 선수의 자세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배려했다.

이어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이 복귀한 올해는 셀룰러스타디움 연습경기에 앞서 직접 만나도록 했다. 하라 감독은 김기태 감독을 퓨처스 감독으로 임명할 만큼 신뢰를 한다. 김기태 감독은 최원준과 류승현을 데리고 직접 인사를 했고 하라 감독은 즉석에서 원포인트 레슨도 했다. 타격할 때 손목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라 감독도 현역 시절 3루수이자 뛰어난 타격을 자랑했다.

최원준은 입단 4년 차를 맞아 중요한 시점에 올라왔다. 작년까지는 기존 베테랑들에 밀려 자리를 차지 못했다.

올해는 기회가 왔다. 주전 경쟁은 물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인정 받고 미래가 보장된다. 김기태 감독은 최원준에게 변화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등을 주문하고 있다. 최원준이 그 불응에 응답할 것인지 주목되는 오키나와 캠프이다.

광양농협 주부대학 동문 22명 게이트볼 입문

광양시농협농업협동조합(김봉안 조합장)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동문들이 뭉쳤다.

이들은 농협 주부대학을 수료한 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들이 모여 운동을 통한 단합과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게이트볼을 선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최원준(광양시 게이트볼협회 감사)감사의 지도로 5개월간 기본기를 연마한 후 지난 22일 광양시전천후게이트구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봉안(광양시농협협동조합)조합장, 장귀남(전라남도 게이트볼협회)회장, 김종필(광양시 게이트볼협회)협회장 등 광양시농협과 전남게이트볼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환영과 축하를 해 주었다.

이 날 김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무엇이든 솔선수범하는 우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종목이기에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사회적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생마중 불부작(蓬生麻中 不扶自直): 굽어지거 쉬운 속에서 삼발 속에서 자리만 저절로 곧아진다.”며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을 낳고, 좋은 인연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고 사자 성어를 소개하며 “우리도 게이트볼을 통해 좋은 인연과 인생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장 회장은 축사에서 전남게이트볼에 관심을 쏟아준 김봉안 조합

농협 봉사활동 실적 우수 주부군단 광양시게이트볼협회 가입 하나로클럽 등록 발대식과 함께 전국 제패 목표로 힘찬 출발



광양시전천후게이트구장에서 하나로 클럽회원(22명)과 김봉안 조합장 등 전남게이트볼협회 임원들이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장남에게 감사를 전하고 “젊고 훌륭한 인재들을 책임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게이트볼에 힘쓰도록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발대식을 마친 하나로 클럽 정미숙(56, 광양시 외동길)총무는 “게이트볼은 나이든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으로만 생각했는데 시작하고 보니 이 나이에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했다.” 또한 “게이트볼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이 활기가 넘치고 건강까지 챙기며 또래회원들과 매일 만나 대화와 소통 속에 친목과 화합이 돈독해

지고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넘친 생활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전했다.

그리고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준 게이트볼 협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하나로 클럽 회원들의 현재 평균 나이는 50세로 임회 자격은 농협 주부대학을 졸업하고 봉사단체에 참여한 자에 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게이트볼은 전국 어디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운동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강정호, 4년만의 시범경기 출장...경기 속도 적응 관건”

MLB닷컴 ‘피츠버그 하이라이트’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32)의 시범경기 출장을 앞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정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던 레플라크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루수로 출전할 예정이다. 그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나서는 것은 바리도 진출 첫해인 2015년 이후 처음이다.

MLB닷컴은 23일(한국시간) 강정호를 피츠버그 스프링트레이닝의 하이라이트로 꼽으면서 “강정호는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했던 2016년 보다 더 좋은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정호는 2015시즌 막판 무릎 수술을 받았고 2016년 5월 복귀해 103경기,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을 기록했다.

문제는 실전 감각이다. 강정호는 2016년 말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결국 2017년을 통째로 쉬었고 2018년에는 시즌 막판 3경기만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

MLB닷컴은 “사실상 두 시즌을 쉬었던 강정호가 경기 속도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봐야 한다. 훈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라인업을 크게 향상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폴린 모란이 계속해서 (3루)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재능은 인정을 받은 강정호가 2년 간의 공백이라는 약점을 지우고 모란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다. 모란은 지난해 144경기에서 타율 0.277, 11홈런 58타점을 기록했다.

한편 24일 열린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의 시범경기에는 폴린 모란이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모란은 2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침묵했다

뉴시스

전남 드래곤즈 2019 시즌 새 유니폼 공개

전남 드래곤즈(사장 조정명)가 2019 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전남의 2019 시즌 새 유니폼 'Escudo de Dragones(에스쿠도 데 드라곤즈)'는 스페인어로 용의 방패라는 뜻으로 전남 엠블럼 외형을 반복시켜 만든 용비늘 디자인이 특징이다.

유니폼은 구단 공식용품 후원사인 조마(JOMA)가 제작하였으며, 유니폼 디자인은 이번 시즌 구단 디자인 전반을 총괄하는 스포츠디자인 전문회사, 라보나 크리에이티브가 맡아 구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9 시즌 전남 유니폼은 옐로우, 블랙, 그린, 핑크 4종 색상으로 출시된다.

올 유니폼은 기존의 레몬 노란색보다 좀 더 진하고 차분한 톤으로 변경되어 무게감을 주었으며, 원정 유니폼은 올 블랙 바탕에 옐로우 마킹으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전남은 홈경기에는 노란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검정/검정, 노랑/노랑 등 상대팀 색상과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착용할 계획이 다.



그 밖에 골키퍼 유니폼은 녹색과 함께 색상 다양성을 위한 핑크색 유니폼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한편, 전남은 지난 22일 오후 7시, 2019 출정식 및 팬데이 행사를 통해 선수들이 새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을 선보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 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미골, 회연사, 선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